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9.21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)

배포일시	2018. 9. 20. (목)	담당부서	총괄기획과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4-203-4120)	담 당 자	박정원 사무관(044-203-4124)

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

- 김 본부장, 격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모색

- 디지털경제 대응, 해외유통망 진출, FTA 빅데이터 분석 강조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9. 20.(목) **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**하여 **최근 핵심 통상이슈와 기 발효 자유무역협정(FTA) 의 이행·활용 현황 점검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.**

<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18. 9. 20(목) 14:00~15:30 / 서울 롯데호텔 36층 밸뷰스위트
- **참 석 자** : (정부위원) 통상교섭본부장, 기재·복지 등 17개 부처 차관, (민간위원) 성극제교수(민간위원장), 상의·중기회장,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
- **논의안건** : ①미·중 무역 전쟁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향, ②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, ③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현황 및 추진방안, ④FTA 국내 보완대책 주요성과, ⑤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, ⑥미 301조, 우리기업 통관애로 특별지원

□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①통상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**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,** ②산업측면에서는 **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.**

○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**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중요**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특히, **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거점(플래폼) 경제와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**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□ 또한, 미중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**주력산업의 발전**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**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으로 혁신성장**에 매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.

○ 예를들어, 우리의 **주력수출품**인 반도체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향후 **미래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**로 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가야한다고 말했다.

□ 아울러, 김 본부장은 **우리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**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.

❶ (**디지털 통상규범 준비**) 다가오는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는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기존의 관세/원산지 기반의 통상규범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만큼 새로운 **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비** 필요

❷ (**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**)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물류망을 잡아야 하는 만큼, 중소기업 제품의 아마존, 알리바바 같은 **플랫폼 입점지원과 우리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**방안 강구

❸ (**자유무역협정(FTA) 빅데이터 분석**)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유망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정 활용을 통해 축적한 **공공 빅데이터를 분석**하고,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 **분석 전문기업 창업 등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창출**로 이어지는 **환경조성** 추진한다.

□ 주요 안건 발표에서,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'자유무역협정(FTA) 국내 보완대책 성과 관련, "'08년 보완대책 수립 이후 **농가소득**은 꾸준히 **증대**했고, **농업생산액**도 **증가**하는 등 **보완대책이** 효과가 있었다."라고 말하고 **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**했다.

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**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**과 관련해서 "현재까지 **기금조성이 미흡**한 상황으로, **기업의 자발적 기부**를 통한 기업과 농어촌 간 **상생협력**이라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활동 강화, 기업-농어촌 간 **협력사업 개발** 등 **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**"하기로 했다.

□ 관세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(301조) 조치로 **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강화가 예상**됨에 따라 **한·중 연결공정제품*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**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 최소화를 위해 **'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'**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.

* 중국산 원재료 사용·중국공장 임가공 등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히 관련된 제품

□ 김영한 위원(성균관대 교수)은 '미·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향'에서 미·중 무역 분쟁이 세계무역에는 국제가치사슬(GVC) 효과 약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

○ 우리 정부에는 **시장다변화·기술혁신 노력의 필요성**과 **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**를 주문했다.

□ 박노형 위원(고려대 교수)은 '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'에서 "국경간 교역이 상품보다는 **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으로 빠르게 증가**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**디지털 통상규범을 논의하는 과정**에 있는 바, 정부가 **주도면밀한 대응**을 통해 **새로운 통상의 틀을 선제적으로 대비**해 나가야한다."라고 제안했다.

□ 김현종 본부장은 "격변하는 통상 그리고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속도에 쫓아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다."라며 부단한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박정원 사무관(☎044-203-41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